주산단지순례 ⑤ 독활-임실

무공해 땅두릅 재배 늘어

알칼리성 자연식품으로 각광
해열·관절통·신경통에 특효

◇전북 임실군은 국내 독활생산량의 70%를 차지하는 독활주산단지이다.

우리나라 독활 생산량의 70%를 차지한다는 전라북도 임실군. 임실은 독활의 주산단지이다. 임실군내 독활 재배면적은 약 1백24만평, 7백여 농가가 독활을 재배하고 있으며 지난해 독활 수확량은 9백여t이다.

독활은 진통작용 진정작용 혈관수축작용 등이 있다고 한다. 따라서 뿌리는 말려서 한약재로 쓰고 어린 잎과 줄기는 독특한 맛과 향기가 있어 신선채소로 이용하기도 한다.

주로 10월에서 3월, 봄 가을로 파종하는 독활은 3년을 키워야 수확이 가능한 다년생이다.

자갈밭이나 모래밭 등 다른 농작물의 재배가 어려운 악조건 속에서도 잘 자라는 것이 특징이어서 임실 지역만 해도 대개가 산골짜기 주로 비스듬한 볼모지, 비탈진 곳에서 무성하게 자란 독활밭을 발견할 수 있다.

독활은 생육이 왕성하여 잘 자라므로 생육초기에 1~2회 김매기를 해주면 7월경부터는 경엽이 무성하게 자라 잡초는 크게 문제되지 않는다. 2년차되는 5월 말경이면 경엽이 완전히 밭전체를 피복하기 때문에 초기에 올라오는 잡초만 제거해 주면 된다.

묘두번식으로 심은 것은 그해 늦가을부터 수확할 수 있지만 보통 2년차 가을부터 본 사이에 수확한다. 굵은 뿌리는 잘라 박피하거나 나이론솔 같은 것으로 문질러 깨끗이 닦은 후 햇볕에 말리거나 40℃ 이하의 건조기에서 건조시킨다.

임실에서 재배된 독활의 90%는 생약협회 임실군 공판장·장장·심재석을 통해 서울·대구등 전국으로 출하·유통되고 있다.

임실에서 독활재배가 활성화되기 시작한 것은 지난 88년부터. 이때 파종한 독활을 수확하던 91년 당시는 근당 4천 2백원 선까지 치솟아 상당한 소득을 올리기도 했다.

그러나 다른 작물의 경우처럼 한가지 작물에서 누가 재미를 보면 너도나도 몰려들기 마련이다. 90년 이후 과잉재배되기 시작한 독활은 시세가 크게 떨어져 지금은 근당 1천4백~1천5백원이 고작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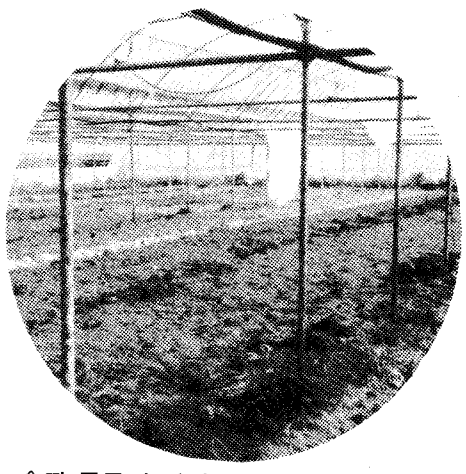
이처럼 독활 한약재 가격이 하락하자 임실군에는 지난 93년부터는 딸두릅 재배로 전환하는 농민이 늘고 있다.

딸두릅은 우리나라 각지에서 자생 또는 재배되고 있는 여러해살이 풀을 말하며 독활은 한약재로 쓰이는 딸두릅의 생산된 딸두릅은 4kg 1상자당 3만5천원으로 전주에서 1만5천원으로 전주는 물론 광주, 대전 등지의 대도시 원예협동조합을 통해 판매되고 있으며 매년 50t씩 일본으로 수출되기도 한다.

딸두릅은 산두릅과 달리 독특한 맛과 향을 지닌 공해없는 식품으로 소비자들로부터 각광을 받고 있다.

또한 해열, 관절통, 신경통 등에 특효를 지니고 있어 앞으로 급속한 수요가 예상되고 있는 작목이다.

생약협회 임실군 사무소를 중심으로 소단위 영농조합법인을 구성, 생약재배에 관한 정보교류등 조직적으로도 활발한 활동을 전개하고 있는 이곳 사람들. 그들은 대량의 독활 묘두를 보관할 수 있는 저온저장고를 설치, 딸두릅을 연중 생산해냄으로서 농촌 농가 소득을 올릴 수 있을 것이라 기대하고 있다.



◇땅 두릅이 자라고 있는 비닐하우스.

이처럼 독활은 한약재로 이용되는것 말고도 딸두릅이라 하여 무공해 알칼리성 자연식품으로 대량 소비되고 있는 추세다.

몇년전까지만 해도 국내 독활생산량의 90%를 소화해 내던 전북 임실군이 이제 딸두릅으로 유명해진 것이다.

임실군 강진면 갈담리 신영규(48세)씨도 독활 재배에서 딸두릅으로 전환한 케이스.

초기에는 단동하우스로 시작했다가 지난해에는 7백여평 규모의 연동하우스에서 5천만원의 조수익을 올렸다.

약초 연구기관을 찾아서

⑤ 진안 숙근 약초시험장

◇박진화 시험장장

호남지방의 유일한 약초시험장인 숙근 약초시험장(장장·박진화)은 전라북도 진안군 진안읍 연장리에 소재해 있다.

숙근(宿根) 약초란 말 그대로 뿌리를 약으로 사용하는 식물을 통칭한다.

옛부터 생약재의 보고로 알려진 지리산과 덕유산 운장산 자락에 진안숙근약초시험장이 설립된 것은 지난해 5월 2일, 실제로 가동에 들어간 것은 12월부터이다.

수입개방화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국산 한약재의 시장경쟁력 확보가 최우선되야 한다는 방침아래 품질의 우량화 차별화를 목표로 10명 직원들이 한마음으로 연구에 몰두하고 있다.

1만6천2백여평의 대지 위에 시험포장 및 기타용지 1만4천여평, 연구실 가공실 온실 등 3천2백㎡의 건축물을 시설하는 한편 품종개발 재배기술연구 품질분석 가공기술 개발에 필수적인 분석 및 가공기기와 농기계 65종을 구입, 설치 운영하고 있다.

또 약용식물 유전자원을 1백45종 확보하여 연구대상 및 전시포로 활용하고 있으며 95년에는 대황 지치 부자 등의 표준재배법 구명 시험과 수집유전자원의 특성 조사등을 수행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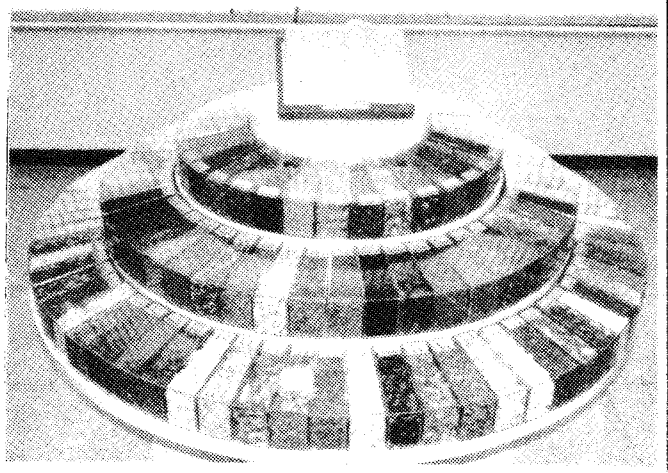
진안 숙근약초시험장이 태동한지 이제 겨우 7개월. 그동안의 연구성과보다는 앞으로 해내야 할 연구과제가 더 많고 연륜이 짧은 만큼 어려움도 많지만 국내 생약농업발전에 한 몫을 하리란 의욕만은 어디에도 뒤지지 않을 자신이 있다.

약용작물 우량품종 개발 연구를 위해 지리산 덕유산 운장산 등지에서 채취하고 있는 유전자원을, 올해는 국내 자생종 외에도 외국도입종까지 1백20여종을 수집 보존할 계획이다.

『유전자원을 다량 확보함으로서 신작물 개발은 물론이고 약효성분, 품질, 특수유전형질을 선발할 수 있지요』 김규태 육종재배 연구실장의 설명이다.

시험장은 또, 한약재 유통실태 및 가공업 연구에도 큰 관심을 갖고 양유, 당귀, 길경 등 지역특산 약용작물의 재배에서부터 가공, 출하 경로, 저장방법에 이르기까지의 유통실태를 면밀히 조사할 계획이다.

품질의 우량화·차별화 목표
한약재 유통실태 조사계획도



◇시험장내에 설치된 한약재 견본

『국산 생약재는 수입산에 비해 품질은 우수하지만 생산성이 낮고 가공저장이나 상품의 차별화 기술에 대한 연구가 부족해 가격경쟁에서 뒤떨어지는 요인이 되고 있다』고 지적하는 곽준수 가공이용연구실장은 『재배에서부터 가공에 이르기까지 유통실태를 조사 문제점을 찾아내고 이에대한 대책을 세운다면 국산한약재도 세계무대에서 시장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을것』이라고 말한다.

현삼 생력가공체계를 확립하기 위해 수세방법 수중조건 건조방법 등을 시험중인 것도 바로 이 같은 맥락에서다.

약용작물의 재배기간을 단축시키면서 생산비를 절감할 수 있는 생력기계화, 재배기술 개발은 농촌의 노동인력이 갈수록 줄어들고 노령화돼가고 있는 요즘, 박진화장장이 무엇보다 시급하다고 생각하는 부분이기도 하다.